



“아이들 모두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주세요.”

강원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다운 의회로 다가가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2020 | 통권 제 179호

강원도의회

# 강원

GANGWON  
PROVINCIAL COUNCIL

2020 | 통권 제 179호

# 의정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 CONTENTS

04

## 인사말

· 강원도의회 의장

02

## 제296회 정례회

04

## 의회 핫이슈

· 고교 무상교육 재원 증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06

## 2021년 예산 심의

· 재난·재해 대응, 강원형 뉴딜 사업에 중점 투자

08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17일에 걸쳐 현미경 감사

12

##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20

도민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도민과 손을 잡겠습니다.

**정의를롭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발맞추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 CONTENTS

04

### 인사말

· 강원도의회 의장

02

### 제296회 정례회

04

### 의회 핫이슈

·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06

### 2021년 예산 심의

· 재난·재해 대응, 강원형 뉴딜 사업에 중점 투자

08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17일에 걸쳐 현미경 감사

09

###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20

### 5분 자유발언

26

### 의정 칼럼

·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31

### 뉴스 / 포토포커스

32

### 돋보기

· 조례 Q&A

36

### 특집1

· 2020 뉴스TOP 10

40

### 특집2

· 2020 말말말!

46

### 특집3

· 2020 법법법!

54

### 의원과 함께 방방곡곡 강원여행

62

· 황성호수길과 풍수원성당  
· 양양 서핑해변

# 강원의정

GANGWON · PROVINCIAL · COUNCIL · JOURNAL

2020 Vol.179

통권 179호 | 2020년

34



41



43



45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발행일 |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광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획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박유식  
문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마음만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소처럼 느리지만 성실하게!

## 숨가빴던 2020, 도민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한 해의 희노애락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힘차게 전진한 우리들을 칭찬하고, 한편으로 반성하면서, 내일의 희망과 변화에의 기대를 품는 때입니다.

올해는 힘겨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을 장악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조심해야 했고 불경기로 직장을 잃거나 반토막이 난 수입에 한숨 쉬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까지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역장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애쓰셨습니다. 삶이 고달픈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신 도민 여러분들께 힘차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국 최초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업인수당과 육아수당이 지급돼 조금 더 시름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다시 힘차게 내일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데 2~5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선진적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1~2년은 앞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잦아든다 해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파가 상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벌써 온라인쇼핑은 물론이고 재택근무, 원격비즈니스, 인공지능화라는 대변화의 물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의회는 이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강원형 뉴딜사업을 선도하면서 강원도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소는 느리지만 온순하고 성실하며, 그래서 부와 행운의 상징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성실하고 차분하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근면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변화의 흐름에 조금씩 발을 맞추다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의 가도에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민여러분!

거리두기는 지키되 마음만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경자년의 어려움은 덮고 신축년 새날을 향하여

강원도의회는 11월 3일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1일까지 39일간의 회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3차에 걸쳐 본회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올해 도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최우선 추진

11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광도영 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5)은 개회사를 통해 “그 어떤 해보다도 어려웠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고통,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나 고통받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면서 “도정 현안사업인 춘

천-속초 고속철도 등 각종 SOC 사업의 활력과 2024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 액화수소 규제특구 지정,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선정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

였으며, 심상화 의원(국민의힘·동해1)은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민의 힘 의원들 간 레고랜드 조성사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결의했음을 밝혔다.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1)은 나라꽃 무궁화의 중심 강원도 육성방안으로 무궁화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하였고,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태백2)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은 도청사 이전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하였고, 심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안미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강조하며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이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을 건의하였다.

### 육아수당, 진통 끝 통과...사회안전망 강화 주문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9일부터 27일까지는 2020년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업무 과중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증설 검토를 주문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도와 시군 간 긴밀한 공조를 당부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체육회 등 산하 기관과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정선 알파인스키장의 관광자원화와 어촌 뉴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서는 레고랜드 관련 불공정한 계약 등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향후 쟁점사항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한 투명한 진행과 홍보를 요청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교사 추가 배치, 초등돌봄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회기에 상정된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2건이었다.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 및 농어업인 수당 등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여 6조 6,813억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도의회 제296회 정례회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성명 발표 “재정여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부담비율 재설계하라”

강원도의회는 12월 9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반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시·도별 재원부담비율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게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래표 참조)

이에 따라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도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고

시된 부담 비율방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명기된 “지자체 전체 부담비율은 1,000분의 50(5%)”이라는 규정과도 어긋나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 전남, 경북, 전북과 같은 지역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재원부담비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정책전환 촉구를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시·도	부담 비율
서울특별시	4.5%	울산광역시	3.4%	전라북도	9.9%
부산광역시	4.5%	세종특별자치시	3.0%	전라남도	13.2%
대구광역시	3.9%	경기도	2.9%	경상북도	10.3%
인천광역시	3.6%	강원도	9.5%	경상남도	5.7%
광주광역시	3.8%	충청북도	6.9%	제주특별자치도	12.0%
대전광역시	3.1%	충청남도	8.4%		

### ▶ 성명서

####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021학년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2020년 3월 3일 국가, 도교육청, 지자체(도+시·군) 재원 부담비율을 고시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전국 시·도별 재원 부담비율 편차가 과다하다. 기존 시·도별 상이하게 지원되던 교육비(2017년 결산 기준)를 근거로 시·도별 부담비율이 책정되었다고 하나, 기존 교학비 지원 비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주민 소득수준이 빈약한 지자체로써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민의 가계를 지원해오던 복지수단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반면, 지원 비율이 낮은 시·도는 그만큼 상대적 주민 소득수준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지자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주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지원을 해왔던 지자체가 오히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고시의 예산부담을 산출기초로써 ‘지자체 기존 교육비 지원’ 지표는 불합리하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부담을 산출 시 지자체별 재정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선제적 복지행정에 대한 역차별 발생 우려가 있고, 전국적 동일 교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무상교육의 수요자인 시·도별 학생 수에 대한 고려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도의 합리적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도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지자체 전체 부담비율을 1,000분의 50(5%)이라고 명기하면서 각 지자체별 부담비율을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해 현저하게 큰 편차로 확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의 부담비율은 1,000분의 47.5(4.75%)로 명기했음에도 정작 고시에서는 지자체에게 국가 부담률의 일부를 떠넘기는\* 해괴한 산식을 적용하여 국가의 의무인 교육의 책임을 편법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지울 수 없다.

\* 법률상 국가 부담률이 4.75%지만 고시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 부담률인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부담 전가

▶ 고시 상, 강원도 부담률 9.5%는 국가 부담률 중 4.5%를 추가 부담하여 강원도에 대한 실제 국가 부담률은 43%에 불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9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 재난·재해 대응, 강원형 뉴딜 사업에 중점 투자

강원도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년도 강원도 예산과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12월 11일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도·도교육청 당초 예산을 가결하였다. 앞서 강원도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 6조 8,520억 원보다 7,579억 원이 증가한 7조 6,099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7개 사업 153억 원에 대한 조정을 거쳐 6조6,813억 원의 당초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주대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시대의 대안, 그린 뉴딜 등 중점 투자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등 계속 이어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및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성장 기회로 바꾸기 위해 도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등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함께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뉴딜 사업, 이모빌리티, 수소열차 등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주도형 뉴딜사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당초 예산안의 3대 중점 투자분야인 강원형 뉴딜사업에 총 1조 4,174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긴급 구호 재정 지원 등 재난·재해 대응 강화에 7,188억 원을 쏟아붓는다. 대도민 서비스의 온라인 디지털화, 전 도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신기술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1,093억 원을 투자하고 액체수소사업, 청정에너지사업, 녹색산업 등 그린 뉴딜사업에 5,8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도민의 안전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입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1,96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육아기본수당에 683억 원 등 모두 2조 196억 원이 지원된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는 9,730억 원이 투자된다.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 정



비에 1,258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312억 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에 40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867억 원이 투자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330억 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농어업인 수당에 375억 원, 어촌 뉴딜 300사업에 215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3,956억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공동체 등 일자리 사업에 193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을 위해 105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지원에 89억 원 등이 투입된다.

지역균형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서는 3,765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40억 원 등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에 본격 대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억 원을 투자하며 여기에는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예산 140억 원 등이 포함된다.

평화지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1,444억 원이 들어간다. 평화지역 지역개발 지원에 841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에 154억 원, 시설 현대화에 100억 원 등이 투자돼 평화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건비 등 각종 경비에는 1조2,16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 지휘부 업무추진비 30%, 사무관리비 25%, 국내여비 30% 등을 삭감하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사업예산 재구조화로 2,239억 원, 예산부서 심의 조정으로 3,2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한편 고강도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등 1,975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도 강원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4차 산업혁명 본격대비 첨단산업 육성** 2,006억 원

·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	· AI 기반 강원형 My-Job 플랫폼 운영	5
·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33	· 강원마트 플랫폼 고도화	8
· 수출사업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3.5	·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업 운영사업	6
·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	12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63
·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국가직접)	10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362
·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7	·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국가직접)	60
· e-mobility 산업 육성(국가직접)	140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90
· 춘천 ICT 벤처센터 건립	49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62
·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국가직접)	40	·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34
·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추진	5	· 쿼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국가직접)	6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3,956억 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8.5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4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53	· 공익활동 어르신일자리사업	46.5
·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	13.7	·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4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05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1
· 사회적기업 육성(지역특화사업)	3.6	·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2.2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89	· 맛멋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8.3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85	· 평화 테마파크 조성	45
· 양양·원주공항 및 무역항 활성화	92	·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25
·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 설치	20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22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9,730억 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752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0
· 국가예방접종 실시	146	·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506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99	·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80
· 소방차량 교체 보강	86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7
· 소방청사 신·증축	77	· ASF대응 포획보상금 지원	5.2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7.7	· 작은 영화관 건립	15.6
· 평창대관령 음악제 개최	17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40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87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397
· 생태하천 복원사업	66.5	· 미세먼지 3차원(드론) 추적관리	9.9
· 체육진흥시설 지원	312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73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 1,444억 원

· 평화지역 5개군 지역개발 지원	841	· 평화누리길 조성	154
·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	35	· DMZ 아트페스타	7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7	·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20
·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100	·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93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20,196억 원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219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64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4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94
· 생계급여 지원	1,965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683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19	· 영아보육료 지원	1,099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0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12
· 기초연금 지원	6,580	·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18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5,867억 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1,330	· 농어업인 수당 지원	375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66	· 농업기술원 청사이전 신축공사	112
·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지원	27	· 발기반 정비 사업(전환)	92
· '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39	· 숲속야영장 조성	20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4.7	·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13
· 어촌뉴딜300	215	· 연안정비	52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3,765억 원

· 지방도 확포장	500	· 도시재생 뉴딜 사업	440
·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13	· 강원권 관광도로 실행계획수립 용역	2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9	·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지원	134
·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35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25

**기타 사업 (법정필수 경비 등)** 12,164억 원

·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78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122
· 강원도 역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0.7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49

##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레고랜드 계약 적정성 등 17일에 걸쳐 현미경 감사

강원도의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강원도와 도 교육청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 도와 도 교육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감사를 통해 도의회는 도의 행정이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위원회 분화, 의안처리의 전자화 등 총 2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도 감사위원회 등 모두 10개 기관을 감사하여 15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특히 수의계약 매뉴얼화, 국외장기교육훈련의 결과 공유, 인공태양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 수립, 평화 관련 행사의 일원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방안 마련, 강원도립대학교의 학과 개편, 알펜시아 매각의 투명한 추진 등을 주문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가장 질의가 많았던 기관은 지방의료원이었다. 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및 수급 방안 등 22건의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밖에도 한국여성수련원과 강원체육회, 강원장애인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는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68건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집행률이 낮고 택배비 지원사업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친환경 쌀 생산단지 규모 확대 지원, 인공어초 사업 확대 등 5개 기관에 대해 모두 9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진흥국을 비롯해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모두 90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방안 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특히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도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사업 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두 71건의 지적이 제출되었다. 특히 도교육청과 15개의 직속기관, 17개의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양식이 상이하고 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면밀한 감사가 어렵다며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방만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



### 피감 기관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 건물 운영부터 의원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우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한 만큼 경기도의회 사례를 검토해 상임위원회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 상임위원회별 역량 강화교육과 인문학 아카데미 등 의원들의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10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접수 건수가

511건에 이르며 원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가 216건에 불과한 만큼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입법담당관실에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의원 조례 발의 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다. 도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 대정부 투쟁 등 도의회의 대외적 의제 정립과 추진을 위해 (가칭)대외협력관 등 담당부서가 필요하며,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와 예산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

### 피감 기관

- 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감사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며 수의계약 관련 주요사항 등을 매뉴얼화해 감사 수행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 청렴도 등급이 지속적으로 낮은 만큼 패널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실국별 비용 처리의 투명화와 함께 도 보조금 지원단체의 철저한 회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과장, 담당, 차석 등의 주요보직과 남성비율이 높은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배치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도민정책추진단, 생활공감정책추진단 등을 지역이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무국의출장 시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만큼 출장의 목적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경기도처럼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도민에게 필요한 자료가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도민제안사업 채택율이 낮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또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이나 보조사업 평가 결과 '폐지'대상 사업에



대해 적절히 예산을 조정하고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69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였다.

재난안전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19건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원주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대처 등 재난상황에서 시군과 도의 협력과 공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평화지역발전본부 감사에서는 평화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중복성 행사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소방본부 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 소방공무원 자체 심리상담사 양성교육의 고급화를 주문하였다.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과 개편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의 대부분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운영과 매각에 집중되었다. 강원연구원에 대해선 비정규직 연구원이 갖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규직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주문하였다.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학사생 선발의 공정성과 공평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였다.

## 사회문화위원회



### 피감 기관

-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한국여성수련원, 지방의료원

사회문화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대변인실 등 4개 부처 및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홍보대사를 적절하게 위촉하고 운영하라고 주문하였고 대변인실은 유튜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새롭게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현지 감사 과정에서 기관 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서는 한국여성수련원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관리 감독과 행정지원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문하였다. 강원문화재단 감사에서는 공모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강원문화재단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 SNS를 통해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와 강원예술제 등 특색 있는 예술축제를 위해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강원문화재단연구소 감사에서는 도내 500여 개의 도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다 민간 소유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다고 적절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 일간지에 대한 홍보비가 정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을 비롯해 운영상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당부하였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수련원 측에서는 소규모 공영희망여행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유오피스 공간 대여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민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속초, 영월, 삼척, 강릉, 원주 등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으며 간호대학과의 MOU 체결, 임금 및 복

지 혜택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농림수산위원회



#### 피감 기관

-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

농림수산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농정국 등 5개 국·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농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청년농 정착 지원, 친환경농업인 차등 지원,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신설 등 계층별, 분야별 농업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주문되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농기계 지원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국방 2.0계획에 따라 군병력이 축소되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도내 농가가 도내 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를 촉구하였다. 가축 분뇨 저감 시설 마련,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대책 마련도 주문하였다. 농촌체험마을 관리 등 침체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녹색국 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멧돼지 남하 방지 울타리를 설치했으나 이는 다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규모 비용이 투자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보존을 원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만큼, 도에서는 정선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생태계 교란식물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사망사업비 감소로 산사태가 151건이나 발생한 만큼 사망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축산스마트팜 통제 제어시스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 등 ICT 활용 실용기술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고령지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본 옥수수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환동해본부 감사에서는 내수면 방류사업에 대해 방류효과를 분석하고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치어방류예산을 확대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집행해주길 주문하였다. 인공어초와 강원심층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방파제에서 부실공사의 흔적이

발견된 만큼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어업 환경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바다를 해양스포츠 공간으로 육성하는 어촌 뉴딜정책을 주문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도내 감염병 검사 결과 강원도가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세 번째로 높은 만큼 결핵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를 요청하였으며 개별 농가나 마을에서 생산하는 절임배추에 대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농정국과 협의하여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 경제건설위원회



#### 피감 기관

-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경제진흥원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경제진흥국 등 6개 부처, 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제진흥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통시장에도 온라인쇼핑 및 배송서비스 등 대형점포의 서비스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공공배달앱 서비스, 전통시장 1인 쇼핑물 지원 등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왓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지금까지는 긴요한 SOC 등 단기적인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으나 향후 신산업 및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

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생하는 데 집중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첨단산업국 감사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중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점검이 필요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일자리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의 지원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형 일자리 창출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역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생태계 변화에 따라,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내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우려하며 신규 자금 유치 전망을 확인하고 공항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다.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도는 현재 레고랜드 공정률이 테마파크는 56%이며 기반시설은 25% 정도로 2022년 3월 개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적박물관 및 공원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참여하지 않아 도나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도, GJC, LLK 등 각 주체별 언론브리핑을 실시해 개장시기가 연기된 사유 등 건설상황을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주문하며 격한 설전이 이어진 감사를 마무리하였다.

건설교통국 감사에서는 각 지역별 국도, 지방도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였다. 지지부진한 옥계지구의 기업유치도 강조하였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인사이동, 인력채용의 로드맵 수립 등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꼬집었다.

## 교육위원회

### 피감 기관

- 강원도교육청
- 15개 직속기관(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 17개 교육지원청(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연구원 등 15개 직속기관, 강원춘천교육지원청 등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해 감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강원도교육청 학습연구년제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 사업을 권고하거나 폐지하라고 결정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권하였다. 이와 함께 교내 안전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과 조례에 따른 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으며 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남아있는 친일자재 청산을 촉구하였다. 초등돌봄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삼척중학교의 태풍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학교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학원 등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강원진로교육원 등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다문화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주문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17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육지원청의 주요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학교운영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주말에 개최해서 운영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독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 교육경비 등 지역현안 문제에 긴밀히 공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자가격리된 교원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 맞춤형 의정교육, 의회 홍보활동 강화 주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11월 3일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회 의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다.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금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본 기간 중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였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137억 2,793만 원으로, 이는 전년예산 대비 1.4%(1억 8,519만 원)가 증액 편성된 규모이다. 이에 대한 심의 결과, 위원회는 속기 장비 구입을 위한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할 것과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를 위한 의정행정 지원 예산을 의회사무처 단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1월 4일 실시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맞춤형 의정교육 추진, 의회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문하며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 주요처리 안건

-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제4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도 예산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계획 보완 주문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소관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2020년 도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11월 19일에는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설전이 이어졌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모험전망대 취득(신축)건과 지난 10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되었던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신축)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건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예산 편성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 끝에,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은 운영비 지원과 기한 등의 운영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마무리되었다.

####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제4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 도 체육회 등 부실 관리·운영 집중 질타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지방의료원의 적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경영손실 보상대책을 도에 촉구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안 발굴에 주력하였다. 도 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회계실태를 비롯하여 선수단 관리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였다. 또 강원도 체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산하가맹단체가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각종 유산 계승 사업들의 사업·효과성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강원FC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강원FC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필수경비가 삭감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증액하고 수정가결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심사에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 논란이 컸으나,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동의하였다.

####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제4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도 예산안
-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 농업 예산 감소 유감, 농어업인수당 2021년 지급 확정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관련 농업예산 확대를 당부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등의 집행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농업인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녹색국에 대해서는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공사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관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농업 기술원에 대해서는 오륜감자 품종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한 신품종 개발을 당부하였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농업분야 예산 중 농어업인 복지 및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되거나 미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도 집행부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에 유감을 표하였고, 결국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계수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였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계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동의안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다.

####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제4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조례 가결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국·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건설교통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11월 19일 제2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25일 제6차 위원회 회의까지 6개 국·청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9건을 심사·가결하였다.

#### ☑ 주요처리 안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강원도 관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1년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 교육문화관 이용시간 현실적으로 수정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본 조례안은 교육문화관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휴관일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교육문화관 휴관과 관련해 교육문화관장이 임의의 사유로 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했다. 이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15개 기관), 교육지원청(17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1개 항목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요구 하였다. 11월 23일부터 25일 까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8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다.

#### ☑ 주요처리 안건

-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 2020년도 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1년도 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제3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역균형 뉴딜에 대하여

허소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춘천5)



강원도 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동해1)

● 최근에 제안된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사업은 정부가 지역 뉴딜로 주력하고 있는 그린뉴딜보다 디지털, 4차 산업 분야의 비중이 크고 강원도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쉬움. 이제 강원도형 뉴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강원도의 주요 정책에 기후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함.
- ② 연 10조 원 이상 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금고 선정에서 탈석탄 투자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③ 강원도가 2019년 수립한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사업을 그린 뉴딜과 연계하기 바람.
- ④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을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의 도입도 필요함.
- 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곧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주민이 마을 연구원이 되어 취약가구를 조사하고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음.
- ⑥ 뉴딜을 비롯한 뉴딜 전담 부서가 지사 혹은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도정의 각 부서에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의 관점이 스며들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생태를 전담하는 부지사급의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안함.

● 국민의힘은 복수의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의혹 진상규명 작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꾸리기로 결의하였음.

●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왔지만 기획조정실 및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이므로 앞으로는 상임위에 나누어져 있는 레고랜드 의혹 진상규명 작업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임.

● 특위의 주요 활동 목적은 첫째, MDA 불공정협약 체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임. MDA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건설 등 사업 진행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음. 둘째, 강원도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밝혀내는 것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정률은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테마파크 23.88%, 기반시설 22.48%라고 하지만 중도사업 현장을 보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듬.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도민들의 우려가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하루빨리 레고랜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함.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나라꽃 무궁화의 중심 강원도' 육성 방안

신영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홍천1)

● 무궁화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배달민족을 상징하고 민족성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국화로, 일제 강점기에 한서 남궁억 선생께서 1918년 선조의 고향인 홍천군 서면 모곡으로 낙향하여 일제의 눈을 피해 각 지방의 학교나 교회에 보급하여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게 하였음.

● 이처럼 나라꽃 무궁화를 지혜롭게 지키고 발전시켜온 강원도가 무궁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보급사업과 학술연구는 물론 나라꽃으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함.

●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국화인 무궁화도 법률로 정하여 위상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일을 강원도가 앞장서 추진해서 무궁화의 중심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점해야 함.

● 홍천군의 사례를 보면 무궁화 전담조직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2008년 대한민국 무궁화의 중심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무궁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① 지사님께서서는 무궁화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과 함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② 교육감님께서서는 강원도가 무궁화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람.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

김혁동 의원  
(교육위원회·태백1)

● 택배 서비스는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하루 1,200만 개의 택배를 주고받고 있으나, 택배 현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택배 기사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 택배 가격의 하락 및 택배 회사들의 낮은 영업 이익률로 볼 때 대한민국의 택배 회사는 부가가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택배 노동자의 노동 강도 또한 늘어날 것이 자명한 현실이므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① 더 이상 과로로 숨지는 택배 노동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조항에 택배업을 예외 직종에서 제외토록 정부와 국회 가 나서야 함.
- ② 연 4,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택배 노동자를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함.
- ③ 택배노동자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해주시기를 호소드림.
-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역과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주기를 요청함.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청사 신축 이전 관련

심영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강릉1)



강원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한 제언

심영미 의원  
(교육위원회·비례)

- 현재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춘천시 현 청사와 인접 부지로 한정하고 오로지 춘천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도청 이전지역 검토는 재정건전성, 행정효율성, 성장잠재력, 지역균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지역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다자가 참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전남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충남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주도로 대전에서 홍성으로, 경북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였음.

⇒ 새로이 도청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시인 평창역시 적극 검토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창은 강원도 중심에 위치하여 균형적인 도정 운영의 적지이며, 평창지역 도유지를 활용한 도청 이전이 도 재정을 감안한 최적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함.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청 소재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강원도 기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년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는 3개 기금을 제외하고, 9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그중 4개 기금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적정한 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있음.
- 그리고 기금 관련 조례 중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조례는 4개만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명시한다고 답변되어 있어, 관련 조례 등에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각 기금사업의 정산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은 2019년 정산을 실시하면서 7개 단체에 대하여 부적정 사용분 등 1,303만 7,440원을 환수한 실적이 있었으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보임. 지방행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함. 첫째,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둘째, 2019년도 사업만이라도 기금 관련 사업의 적정 심의 여부와 보조사업 정산검사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착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미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비례)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10.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아동 100명 중 1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살고 있음.

- 최근 상정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빈곤아동의 주거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강원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서도 주거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문제는 주거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임. 강원도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효도아파트 공급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지원사업도 주거 기본법에 따라 추진 가능했지만 단 1원도 지원된 바가 없음. 이에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안함.

⇒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인재양성의 첫걸음이며 인간 존엄의 기본이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기도 함.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이 더는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도록 주거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을 요구함.



강원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이병헌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2)

- 무형문화유산은 사람 간의 전승, 세대 간의 전승이 유일한 전승체계로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문화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에 시행하였으나, 지정된 문화재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목록화하고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재하고 연구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만 보전과 전승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반드시 무형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 지난해 강원도에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빠르게 소실되어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리고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좀 더 선구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 건의

조성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

- 해미산성은 원주시 관설동과 판부면 금대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성문과 성벽의 잔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성내의 곳곳에 건물지의 흔적도 남아 있음. 또한 북문터에서 발견된 청해파문 외편은 바로 동북쪽에 위치한 영원산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미산성이 조선시대에도 일정 시기 동안 사용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 1988년 원주시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된 원주 영원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사절요 고려사의 지리지에도 이 산성에 대한 언급이 있음.
  - 성 안팎 주변의 경관은 소나무와 자작나무 그리고 전나무의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수백 년이 지난 방석소나무의 위용은 강원도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음.
  - 또한 강원도 자랑인 치악산의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남태봉과 시명봉의 높은 산줄기가 동쪽을 막아서면 서 명산의 기운을 한껏 느끼게 되며 향로봉에서 남남서 방향으로는 현저히 낮아지면서 뻗은 산줄기로 인해 서쪽으로는 원주시가 한눈에 들어와 장관을 이룸.
- ⇒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을 통해 산성 복원, 들레길 조성 등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원주에서 추진하는 반곡역에서 금대리까지의 관광자원화와 연계를 한다면 강원도의 훌륭한 역사교육장 및 트레킹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어렵게 살던 인근 지역 후손인 주민들에게도 큰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알기 쉬운 정책 용어

## 깨진 유리창 이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는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브롱크스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 버렸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어 간 것이다.

1982년 켈링과 윌슨은 이 실험에 착안하여,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Monthly)》에 기고한 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붙였다.



## 이주여성이 죽지않을 권리를 위하여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 최근 원주에서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지 1주일 만에 베트남 여성과 자녀가 남편에 의해 방화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결혼생활 내내 시달리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1주일 만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2019년 체류 외국인인 252만4,656명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4.9%를 넘어섰다. 통상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되는데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의 국내 유입이 30년 된 시점에서 국가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과 노동력 부족 등의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추진됐다. 준비없이 시작된 국제결혼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정부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28곳),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누리콜) 등을 통해 노력했지만 사각지대 이주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0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주여성 사망사건은 춘천에서 발생했다. 12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방화로 캄보디아에서 결혼, 이주한 지 11개월 만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한국 이주여성 인권보호체계의 부실함을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다.

그 후 2012년 철원에서 결혼 7년된 이주여성이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으로 뇌사상태 후 사망했고, 같은 해 정선에서는 입국 13개월 만에 정신질환 배우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 홍천에서는 입국 2개월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등 도내 이주여성 인권보호의 부실함의 민낯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2017년 국가인



권위 조사에서도 이주여성이 경험한 가정폭력은 42.1%로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의 상담통계에서도 도내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건수가 2019년 953건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아직 이주여성이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국어 상담을 위해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다누리콜도 운영 중이나 서울·경기, 경북, 전북, 부산, 대전, 광주에 있어 강원도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공모했는데 현재 인천, 대구,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에 설치, 경남과 강원도만 다누리콜 뿐 아니라 이주여성상담소조차 없다.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외부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많다. 체류나 귀화 등에 배우자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체류불이익, 자녀 양육권 등의 이유로 폭력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이 폭력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언어로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어느 이주여성의 사례처럼 "(폭력을 당해)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유방암에 걸렸다"로 넘겨짚는 오류를 없애려면 상담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주민 전용 위기지원 전화나 상담시설이 없는 강원도는 도내 이주여성들의 안전을 타 지역으로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옳지 않다. 내국인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보호를 이주민들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 다문화사회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연구



• 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다문화사회연구회는 11월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 및 돌봄, 교육, 건강과 보건의 세 측면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를 진행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연령대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기후변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 기후변화와 강원도 발작물의 봄철가뭄과 정책시사점 연구



• 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기후변화연구회는 11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와 강원도 발작물의 봄철가뭄과 정책시사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패턴이 변화하여 봄철 강수량이 크게 줄고 가뭄이 심화되면서 농가의 수확량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평년 대비 강원도의 봄철 강수량은 15~17% 감소했고 특히 고성과 양양지역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현기간 30년 기준으로 하천유량 또한 약 37% 감소하여 강원북부지역과 영동지역의 가뭄 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수관로 유지점검 관리를 통해 우수율을 제고시키며 용수 부족지역은 물 소비 수량이 적은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전통시장살리기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 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전통시장살리기연구회는 11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 개최지역의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결과 강릉과 평창, 정선지역의 방문객 추이에는 변화가 없거나 특히

주문진 시장은 방문객과 소비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외국인의 방문은 95%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방문객들의 시장 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관광객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하고 올림픽 레거시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 대형마트나 온라인 스토어, 체인스토어 등과 상생 협력하고 커뮤니티 주도의 공익 캠페인이나 공익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남북강원도연구회는 11월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협력형 남북강원협력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획득한 만큼,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도에서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북한의 국토관리정책 및 경제특구전략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개발 협력형 모델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특히 북강원도를 중점으로 한 사업모델과 관련, 북한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남북강원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협력형 남북강원협력사업 모델 개발



• 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젠더연구회는 12월 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강원도 조례(경제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강원대학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전체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분야별 130개 조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참여, ④ 성별통계 항목을 적용하여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후 성평등이 취약한 내용을 찾아내어 개선방향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특히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들에 대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등 성평등 목표를 중점으로 한 조례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젠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 도 경제 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 2020 김장시장 직거래장터 개장식(11월 5일)



▲ 태풍 피해지역 재난구호금 전달식(11월 10일)



▲ 강원사랑 3대기획 개회식(11월 19일)



▲ 2020 연탄봉사활동(11월 23일)



▲ 제25회 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11월 17일)



▲ 강원도 일자리대상 시상(11월 26일)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행사(11월 19일)



▲ 강원도 자치분권 포럼(11월 26일)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조성호 의원 외 2인

**Q** GTI 국제무역박람회가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A**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이란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입니다. 본래 북한도 포함되었었는데 2009년 북한이 탈퇴하며 4개 회원국만 남아있습니다. 이 4개국 간 국제무역박람회가 2013년부터 열려 올해는 온라인으로 제8회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참관객과 수출계약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참관객이 4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3만 명이 참관했고 올해는 온라인 참관객이 399만 명에 달했지요. 수출계약은 2013년에 523만 불이었으나 지난해에 3억5,378만 불이었으며 올해는 2억5,731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박람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박람회의 육성과 발전에 적합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형원 의원 외 4인

**Q** 도로공사를 할 때 안내 의무와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A** 네. 그래서 이번에 도로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과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 등과 관련한 교통관리대책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 파손이나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신영재 의원 외 2인

**Q**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전에 공동주택을 품질을 점검하는 점검단 운영이 의무화된다면서요?

**A** 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점검단은 춘천, 원주, 강릉권역별로 20명 이내의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점검단이 구성되면 공동

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법 덕분에 공동주택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어지겠지요?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발의 | 안미모 의원 외 13인

**Q** 빈곤층이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A** 강원도는 주거 빈곤 가구비율과 아동가구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주거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요.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통해 주거 복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과 대출이자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년소녀가장·고령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형원 의원 외 3인

**Q** 코로나19로 지역 항공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강원도의 재정 지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가 재정 지원을 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협의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직과 항공산업 종사자 등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지원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입니다.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형원 의원 외 2인

**Q**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7조 제2항 중 "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를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공항 재정지원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두 조례안을 통합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습니다. 의회는 이처럼 서로 상충되거나 유사한 조례를 손보고 다듬어 도민 삶에 꼭 필요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지영 의원

**Q**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여성 과학기술인이 적어요. 전체의 불과 2.6%인데요. 여성 과학기술인을 키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조례를 제정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나 기관, 단체의 연수 또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이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단체에는 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상호 의원 외 6인

**Q** 도내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순직한 분들을 기리거나 지원하는 활동이 있나요?

**A**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만 겨울 나기 지원금과 휴양지원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내에서만 4,104명이 매몰사고로 순직했고 이들의 희생으로 근대 산업발전의 초석을 닦은 만큼 이 산업전사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는 기념사업, 유가족 복지·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 심상화 의원 외 13인

**Q**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정부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봉사만 하라는 건가요?

**A** 법적으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내에서 구체적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상구조 활동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했지요. 이 조례에 따라 수난구호 관련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수난구호 활동에 나설 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허소영 의원 외 3인

**Q**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교육을 관리하나요?

**A** 지난 2011년 12월 제정된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교육 정책을 심의·조정해왔어요. 그러나 환경교육 전문가가 없어 환경교육 정책 마련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관련 국·과장, 도의원, 환경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도내 환경교육정책을 관장합니다. 또 도 소속 공무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실적을 공무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추가했습니다.



###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윤지영 의원 외 9인

**Q**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적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대안이 없을까요?

**A** 최근 3년간 강원도(본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기준인 1%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를 보여 17개 광역단체

중 매년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의회는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허소영 의원 외 10인

**Q** 지역 서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추억과 책임 있는 동네 서점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A** 도내 중소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 이죠. 도내 서점은 지난 2003년에 135개이던 것이 지난해엔 64개만 남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지사는 도서정가제의 정착, 지역서점 우선구매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고 창업자금과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지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우선 구입하는 학교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는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 강원도의회 뉴스 TOP 10

# 발로 뛰며 도민에게 다가간 2020년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힘썼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는 올해도 발로 뛰며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있었다.

올 한 해 동안 변화하고 혁신하며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간 도의회의 2020년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 1 10대 후반기 의회 구성

올 6월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개원했다. 도의회는 대화와 숙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박도영 의장과 박효동·신도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신입 의장단과 함께 후반기 의회를 열어젖혔다. 6개 상임 위원장에는 김진석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호 기획행정위원

원장, 장덕수 사회문화위원장, 김정중 농림수산업위원장, 김형원 경제건설위원장, 최재연 교육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위해 일하면서 도민과 더 가까운 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 입법 지원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도의회 사무처에는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도의원의 조례 제정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10대 도의회 내 9개의 연구회 운영을 돕고 있다.

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신설돼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도의회 사무처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

## 의정 연구회별 적극적인 정책 연구

도의회는 올해 의정 연구회별로 활발한 정책 연구 활동을 펼쳤다. 제10대 도의회는 의정발전연구회, 젠더연구회, 남북강원도연구회, 자치분권연구회, 전통시장살리기연구회,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 기후변화연구회, 다문화사회연구회 등 총 9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원정책개발비를 통해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는 ‘중앙정부 관리기금 현황과 강원도 활용전략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다문화사회연구회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남북강원도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협력형 남북강원협력사업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젠더연구회는 ‘강원도 조례(경제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를 완료했다. 전통시장살리기연구회는 ‘평창동계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기후변화연구회는 ‘기후변화와 강원도 발작물의 불철가뭄과 정책시사점’ 연구용역 보고를 마무리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도의회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강원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 수혜를 입어 침체된 경기를 다소나마 회복시켰다.

도의회는 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가정의 지출은 늘고 교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학생이 있는 가정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 호응을 얻었다.



# 4

## 시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도의회는 올해 도내 시군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어 도내 시군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의거해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시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앞으로 3년간 매년 보통세 최대 475억 원, 균특회계 지역자율 보조금 134억 원, 협력사업비 10억 원 등 총 619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 5

## 도내 농어업인 지원 강화

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안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가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그간 농어업의 공익성과 함께 지역 브랜드화, 관광자원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도의회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농어업인에게 매년 7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도의회는 17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중 농어업인 수당 예산 375억 원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부터 농어민들에게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에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데 이어 올 초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신설, 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 6

## 7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 위해 농특산물 구매 지원

기상 이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진을 겪은 화천 산천어축제장이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자 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 화천 농특산물을 판매해주었다. 도의회는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곡류 13종, 나물류 12종, 임산물 14종 등 총 73개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도의회는 이번 아니라 강원도가 추진한 감자 팔아주기 운동과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도 동참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도의회 차원에서 헌혈운동에 참여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별로 마스크 제작,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에도 적극 나섰다.



## 8 도내 모든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

도의회는 올해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 표현을 모두 노동으로 변경했다

종속적이며 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라는 표

현을,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의미와 함께 주체성을 담고 있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꿈으로써 노동자의 위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강원도 노동기본조례안」을 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기도 했다.

## 9 우수 의정대상 강원도의회 의원 9명 수상

전국시도의회회장단협의회가 전국 시도 광역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시상하는 우수의정대상에 올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는 김규호(더불어민주당·양구), 김상용(더불어민주당·삼척1), 김준섭(더불어민주당·속초1), 박인균(더불어민주당·강릉2), 심영섭(국민의힘·강릉1), 윤석훈(더불어민주당·영월1), 윤지영(더불어민주당·춘천1), 정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최재연(국민의힘·철원1) 의원 등 9명이였다. 제9회 우수의정대상에는 권순성(더불어민주당·원주6), 박병구(더불어민주당·원주1), 이병헌(더불어민주당·원주2), 김혁동(더불어민주당·태백2) 의원 등 5명이 선정되었다.



## 10 인터넷 생중계, 강원의정 발행 통해 홍보 강화

도의회는 올해부터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의정 활동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책자 형태의 <강원의정>지를 제작했다. <강원의정>은 조례 제정, 사업 승인 및 예결산 심사 등 매 회기마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보도하며 호평을 받았다. 또 지역구 현장에서의 도의원들의 주요한 성과를 알리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강원의정>은 연간 9회 발간되며 매회기마다 9,400부를 발행해 도내 이·통장 및 주요 기관, 출향도민회 등에 배포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점목자도 발간해 49개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고 있다.

도의회는 또 HD급 고화질 인터넷방송을 통해 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강화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6개 모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현장을 생중계로 만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 도의원의 활동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0 5분 자유발언 모음 말말말

강원의 밝은 미래를 향한 간곡한 충언

5분 자유발언은 선출직 의원들이 자기의 정책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의원들은 도정사항과 관련한 안건이나 기타 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 등을 개진하고 소신을 피력할 수 있다. 올 한해 9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67건의 발언을 하였다.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향한 간곡하고 진심어린 충언들이 강원도의 미래를 밝게 열어젖히고 있다.

≡ 제287회(2월 11, 20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제안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비례)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없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말은 공허한 계획일 뿐입니다. 도와도 교육청이 협력해 부모들에게 육아의 평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지역인재 육성정책 제언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4)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 출자 공기업과 각종 재단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이 따리를 틀 수 있도록 도정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설악수련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속초2) 설악수련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설악동 활성화라는 길고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상인과 주민들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기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관련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영월1) 도개발공사는 즉각 주도적으로 매각 절차에 나서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고 있는 알펜시아의 실질적 주인인 도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로나 노동이나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강릉2) 노동은 언어의 발달과 함께 두뇌와 손발의 신경계를 상호 자극하는데 영향을 주어 유인원에서 인간을 분리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일환으로 근로가 아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강원도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5) 교황 바오로 6세는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의’의 자리에 ‘인권’을 넣어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인권을 구현하라.”



동해항은 버려진 땅입니다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동해2) 동해·묵호항을 포기하는 것은 동해바다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해·묵호항은 강원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 제288회(3월 17, 20일)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제언



**심명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강릉1)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조속히 강릉 회산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해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편치볼 국유농지 개간비 보상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양구)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이 가야 합니다. 개간비 보상이 반영된 매각 가격을 정해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인제) 도내 사이비종교에 빠진 피해자들은 도내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허황된 교리를 믿으며 청춘을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결혼 이주인 여성들의 농촌정착 대안이 필요하다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원주4)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요리법이나 식품의 가공·저장 방법 등 각 나라의 음식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장천 수질환경 대책 마련



**니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정선2)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모든 인류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하였습니다. 강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일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과제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비례) 도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염병대응연구소 설립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공동방역시스템과 협약을 만들어 감염병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 제290회(4월 21, 29일)

###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지원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정선1)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빈익빈·부익부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신용평가만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요구합니다.

### 포스트(POST) 코로나를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영월2)  
 지방정부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방 소도시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또 소멸의 길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통렬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 코로나19와 강원도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5)  
 의료 여건 개선과 지역화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지역 이주의 걸림돌이었던 의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 강원도의 이해



**박병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원주1)  
 개인적으로는 알펜시아 매각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알프스를 꿈꾸며 만든 알펜시아, 실현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방사광 가속기와 수소융합에너지 대형 연구시설 유치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4)  
 춘천에서 첨단 연구로 발굴되는 핵심원천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해양문화제 개최에 관한 건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바다는 도구적 성격을 벗어나 삶의 장이요, 내면적 전유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해양문화제는 도 문화역량의 제고와 문학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대해



**박윤미 의원**(교육위원회·원주3)  
 명칭 변경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건강실무사를 학교 간호사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제291회(5월 6, 19일)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동해2)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은 최초이고 신기원이며 역사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국민이어서 자랑스럽고 강원도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제안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서의 산림이 아니라 육지 동물로서 인간은 산림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제 의식이 제시되어야만 엑스포의 주제가 구체화 될 수도 있습니다.

###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방안 강구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영월1)  
 미시령 터널 손실 문제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을 즉시 발족하시기 바랍니다. 인원과 예산을 아낄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비례)  
 전문인재 투입, 충실한 준비, 국내외 투자 가능 기업 발굴, 선정기준 확립 등을 통해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원도가 함께하였다



**박인균 의원**(경제건설위원회·강릉2)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춘천, 강릉 등지에서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저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야욕 음모를 춘천 시민에게 알립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농어업인 수당지급에 대하여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홍천2)  
 올해 분명히 수당을 준다고 했다가 시장·군수 반대에 부딪혀 못 준다고 하니 또다시 농사짓고 고기 잡는 사람만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이강원 재정위기에 대하여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양양)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양양공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소득 확대 등 강원 경제 전반에 끼치는 손실은 불 보듯 뻔 할 것입니다.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속초2)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가정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교육재난이고 학생이 소속된 가정의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292회(6월 2~18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현실화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비례)  
도와 교육청은 장애인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구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동해본부 기능 확대 및 강화에 대하여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강릉4)  
영동지역은 북방경제의 전초기 지로써의 성장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환동해본부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관련



**주대호 의원**(사회문화위원회·속초1)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 명분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하여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춘천2)  
코로나19 이후 원래의 교육시스템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교육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는 '쿨루프' 캠페인 제안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원주4)  
쿨루프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건강한 강원도로, 강원 의 욕상과 지붕, 그리고 도민 모두의 마음이 '웰빙 화이트'로 바뀌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원주 舊 종축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상호신의입니다”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비례)  
구 종축장 부지에 강원남부권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 남부권 도민의 요구입니다. 도 지휘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심영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강릉1)  
사회문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며,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리당략보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강원도를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제안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영월2)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는 지나치게 외형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인프라와 반려동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 제293회(7월 15일)

철원의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최재연 의원**(교육위원회·철원1)  
철원군의 도내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 101.7%로, 도내 평균인 44.4%에 비해 배 이상 높습니다. 또 전체의 9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군 전투기 소음 관련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횡성1)  
군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 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춘천 전투에 대하여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춘천4)  
춘천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6.25전쟁에서 유일무이한 첫 승리를 거둔 춘천대첩의 도시이며, 나라를 구한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호국 가치를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동해2)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4개소만 설치되어 1개 기관이 평균 4~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우리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하여



**이병현 의원**(경제건설위원회·원주2)  
런던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제294회(9월 2, 10일)

한국광업공단 설립에 대하여



**이상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태백1)  
통합에서 비롯된 한국광업공단의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관리 필요성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비례)  
아동·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감안 한다면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동해지방경찰청장 직급 격상 촉구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국제적 분쟁 강력 대응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현 경무관에 서 치안감으로 격상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강원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승격에 대하여



**최재연 의원**(교육위원회·철원1)  
한탄강의 국가하천 승격 및 용강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이 이루어져 강원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개발의 성공사례가 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강원도 제2청사 관련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강릉1)  
지난 50년 동안 도 환동해본부도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이었다면 향후 50년의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환동해본부가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제언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이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강원도 혁신도시에 대하여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춘천4)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혁신도시 성과의 공유와 기금의 설치 운용을 구상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의 성과는 공유가 원칙입니다.

### 침묵의 살인자 석면 제거 건강권 확보 촉구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강릉3)  
금년 7월 현재 도 산하기관 총 65개 소 중 19개 소만 석면 제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10개 소는 일부만 제거하였고 36개 소는 전면 미제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 제로의 강원도를 만들어주시길 촉구합니다.

### 2021년도 농업예산증액 및 강원도 농어민수당 금년도 지급



**신도현 의원**(농림수산위원회·홍천2)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존 직불제와는 다릅니다.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 교육행정의 전반적 이해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원주1)  
기업도시의 완성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주민 다수가 원하는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정선2)  
폐특법의 독소조항인 일몰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폐광지역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구가 되고있는 중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임대수익 축소 문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닌, 사실은 폐였으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임대수익 축소 계약변경을 지시했는지 낱알이 밝혀야 합니다.

### 강원연구원 분원 설치 필요성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강릉2)  
몸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동지역 사업은 남북 화해와 교류가 어떻게 되어드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영동에 강원연구원 분원을 설치하길 바랍니다.

### 춘천 중도유적과 문화재 미지정의 아쉬움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양구)  
중도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지정 못한 것은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무관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유적과 관광시설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제295회(10월 13, 22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비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돌려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 같은 미래세대입니다.

### 강원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대응 촉구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양양)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서양속담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는 또 다른 크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도정발전 위해서는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심상화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해1)  
춘천 닭갈비, 동해안의 도루묵, 감자 등 강원도 특산품을 상품화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식품안전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20 의원 발의 조례

생활부터 산업까지 촘촘히 밝히는 조례 77건 제·개정

올해 강원도의회는 300여 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느라 분주했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개정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발로 뛰며 현장을 살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를 77건이나 제·개정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강원도의 발전과 안녕, 변화와 혁신을 향해 탄생한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본다.

제287회(2월 11~20일) 의원발의조례 15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국전쟁 중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1인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대상 확대,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 위해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심영미 의원(미래통합당·비례)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령사회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윤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1) 외 2인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국제문화교육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외 3인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이스포츠 진흥 계획 수립 및 대회 개최 시설 설치·운영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2인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위해 비용 지원, 운영실태 조사	신도현 의원(미래통합당·홍천2) 외 2인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어업 종사자에 대한 시상 확대를 통해 어업 육성	위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4) 외 4인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회전 제한 지역 내 공회전 허용 시간 2분으로 단축	권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6) 외 3인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시·군이 주차장 설치 시 사업비 일부 도비 보조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외 1인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안	도내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외 3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청년사업단 운영, 청년 주거안정사업, 청년공간 설치, 청년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인제) 외 2인

※ 296회 5분 자유발언(9명)은 본지 26~30p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안	도교육청 공문서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 국어교육계획 수립	윤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1)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교육청 관련 조례에서 '근로'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수정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외 2인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심영미 의원(미래통합당·비례) 외 7인

제288회(3월 17~20일) 의원발의조례 4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질병치료, 건강장애예방, 체력단련실 등 설치	박병구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위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4) 외 3인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원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3) 외 2인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심영미 의원(미래통합당·비례)

제290회(4월 21~29일) 의원발의조례 9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의 추천 방식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명예도지사 위촉 및 해촉하도록 개정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강원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	박인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 외 3인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군부대 주변 소음 예방, 소음 피해시 무료 법률상담, 피해 지원 위한 도와 시군 협조	김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구)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여성폭력 방지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 지원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외 2인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 설치, 운영	심영미 의원(미래통합당·비례) 외 3인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술인의 권리 보호,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법률적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추진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외 2인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 시군의 재활용자원 수거 관련 도의 처리비용 지원	김정중 의원(더불어민주당·양양) 외 5인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계획 수립, 특화단지 조성, 기술 인증기관 설립,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추진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외 2인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이종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 외 1인

제291회(5월 6~19일) 의원발의조례 5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50%로 확대	안미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7인
강원도 한혈관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한혈관장 사업계획 수립, 한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경비 및 활동 지원	한창수 의원(미래통합당·횡성1) 외 3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철거 등 관리에 관한 빈집정비지원계획 수립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할 경우 주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 지정, 예산 지원, 기관 및 단체와 교육협력사업 추진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1인

제292회(6월 2~18일) 의원발의조례 6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지역사무를 강원도가 대행, 경비 지원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4인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 외 2인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	심영미 의원(미래통합당·비례) 외 1인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봉산업시책 마련, 양봉시설 지원, 신품종 보급, 농가 경영안정 사업 추진	김정중 의원(더불어민주당·양양) 외 5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재지변, 전염병 및 감염증 확산, 자연·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긴급 재정 지원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해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삼척1) 외 3인
---------------------------------	--	-------------------------

제293회(7월 3~15일) 의원발의조례 5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추가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외 1인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 시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추가	박효동 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 외 4인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교육재난 발생 시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김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2) 외 5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연고지 순환근무 교육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관사 보유	김준섭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2) 외 2인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교복 구입비 지원, 전학 및 편입학 1학년에게 구입비 지원	이종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

제294회(9월 2~10일) 의원발의조례 10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 지원, 직업교육, 창업교육 등 실시	김경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월1)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율방범 활동 장소와 경비 등을 도지사가 지원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외 10인
강원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군 복무 중인 강원도 청년에게 상해보험 지원해 사고 시 치료비 지급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 외 3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존 묘지나 분명 지정 시청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존 묘지로 지정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외 5인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추가 설치, 피해장애인 지원, 변호사 지원 등	반태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3)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맹견의 정의를 추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시설에 출입금지 규정	최재연 의원(미래통합당·철원1) 외 4인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원 발굴,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추진	박인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 외 3인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이 1건에 2,000원 미만일 때 없던 것을 1건에 5,000원 미만 일 때 없는 것으로 개정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학교에서 향토사 교육을 하는데 지역의 향토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등과 협력하여 지원	심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 외 3인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 운영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	윤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1) 외 1인

제295회(10월 13~22일) 의원발의조례 13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 양구 주민까지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해 요금 감면	주대하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 외 7인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예산 지원	김수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차원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 위해 종합 계획 수립,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지도, 감독	윤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1) 외 10인
강원도 농어촌 총각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어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여성을 포함하고 조례 제명도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수정	윤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1) 외 10인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재활용산업 촉진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재활용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 시행	함종국 의원(국민의힘·횡성2)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곤충산업 육성 지원 위해 곤충첨단융복합센터로 개편, 곤충산업 발전 위한 시설 및 운영, 정보 수집 등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 외 3인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통연수원 설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비용 보조	조형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제)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산업기반 조성, 중소기업 및 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공영주거장 설치 운영 및 임대 위탁 운영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외 2인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와 강원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1) 외 2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상기업 지원에 노동자 복지증진 추가, 세무조사 유예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외 2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R&D에 활용하고 공공기관 대상 공모신청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	이상호 의원(국민의힘·태백1) 외 5인

제296회(11월 3일~12월 11일) 의원발의조례 12건

조례	핵심내용	의원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회의 안정적인 성과에 따라 박람회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 외 2인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로공사, 안전,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제반 계획 수립과 공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외 4인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건설 시 품질점검단이 품질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	신영재 의원(국민의힘·홍천1) 외 2명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빈곤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 등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규정	안미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13인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항공사업자 지원 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외 3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기 조례와 내용 통일을 위해 개정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해2) 외 2인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연구활동을 지원 하고, 공적이 탁월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포상	윤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1)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안	도내 탄광에서 매몰사고로 순직한 산업전사를 기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이상호 의원(국민의힘·태백1) 외 6인
강원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수난구호활동을 하는 민간인 구조대원이나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심상화 의원(국민의힘·동해1) 외 13인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공무원 환경교육 실적을 공무원 평가에 반영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외 3인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매목표비율을 규정	윤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1) 외 9인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창업자금과 마케팅 지원에 관해 규정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 외 10인



풍수원성당과  
횡성호수길

# 고즈넉한 공간에서의 느린 휴식

“ 횡성은 조용한 도시이다. 고즈넉한 휴식공간이 적잖아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받고 싶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전원주택도 유달리 많고 계곡이나 사방댐, 호수를 따라 펜션이 즐비하다. 묵언하며 자신을 고요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만한 공간이 많다. 연말연시, 횡성에서의 느린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한창수 의원(횡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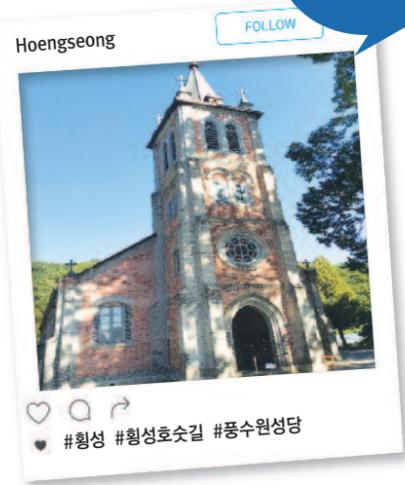
### \* 100년의 믿음, 풍수원 성당

서원면 유현리에 위치한 풍수원 성당은 횡성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100년이 넘는 성당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지로 유명해지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주변풍광이 알려지자 2003년에 성당 주변이 유현문화관광지로 지정되었어요.

풍수원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경기도에 살던 4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정착한 지역이에요. 이 주변으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1대 신부인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20칸의 성당을 처음 지었지요. 현재의 성당 건물은 1896년에 부임한 정규

하 신부가 직접 설계해 중국인 기술자를 동원하고 신도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 완공한 것이에요. 당시 돈이 80원이 들었다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억 원 가량 된답니다.

이 성당은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자 한국에서 네번째로 건립된 절충식 고딕 건축물이에요. 빨간벽돌 건물과 뾰족한 종탑의 모양이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지면서 이채로운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답니다. MBC 드라마 ‘러브레터’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촬영장으로 더욱 이름을 알렸지요.

성당 내부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박한 느낌이에요. 처음 세워질 때처럼 신발을 벗고 성당에 들어가는 규칙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더욱 정겨운 느낌을 줍니다. 성당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언덕을 따라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길인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14점의 그림은 판화가 이철수의 작품이에요. 이 길을 따라 가면 기도하는 공간과 가마터가 나옵니다. 오래전 가마를 굽던 곳에서 옛사람들의 향취를 느낄 수 있지만 실제 가마를 구울 수는 없고 구경할 수 있게 모양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주변엔 커다란 옹기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 더욱 멋스런 풍경을 선물합니다.

조금 더 가면 유물전시관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풍수원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농기구와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베틀, 절구, 호미, 팽이 등 100~200년 전 물건들이, 가난했지만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유물전시관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풍수원 성당은 오래된 성당을 살펴보고 산책로를 걸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공간이에요. 일상에 지치고 고될 때 풍수원으로 오세요. 오래된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믿음의 향기가 지치고 아린 마음을 어루만져 드립니다.

### 호수 곁 힐링의 길, 횡성호수길

횡성호수는 섬강의 줄기가 2000년 11월 횡성댐으로 막히면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횡성댐이 생기면서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천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 리가 물속에 잠겼지요. 이때 253세대 938명이 고향을 떠났고 삶의 기억은 물에 잠겨버린 슬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이 호수를 따라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개방되었는데 총 6개 구간 최장 31.5km로 1구간 횡성댐길(3km), 2구간 능선길(4km), 3구간 치유길(1.5km), 4구간 사색길(7km), 5구간 가족길A, B(9km), 6구간 화상길(7km)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간은 제각기 색다른 멋을 지닌 채 웅장한 숲과 호수를 품고 있지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듯 알록달록 호수가에 얼룩진 풍경이 눈에 호사를 안겨줍니다. 봄과 여름에는 울창한 밀림과 파릇파릇 풀잎이 눈을 즐겁게 한다면 가을에는 붉게 물든 낙엽에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초겨울이라면 낙엽으로 포장된 명품길을 가볍게 밟으며 자연의 속삭임을 엿들 수 있지요.

6개 구간 중 가벼운 주말 나들이를 원한다면 하늘과 맞닿은 듯한 호수속 자연 절경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5구간 코스를 추천할 만 합니다. 이 구간은 가족길인데 각각 4, 5km씩 A, B코스로 나뉘어져 총 9km입니다. 2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이 길은 평탄해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출발점이자 주차장인 망향의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회귀코스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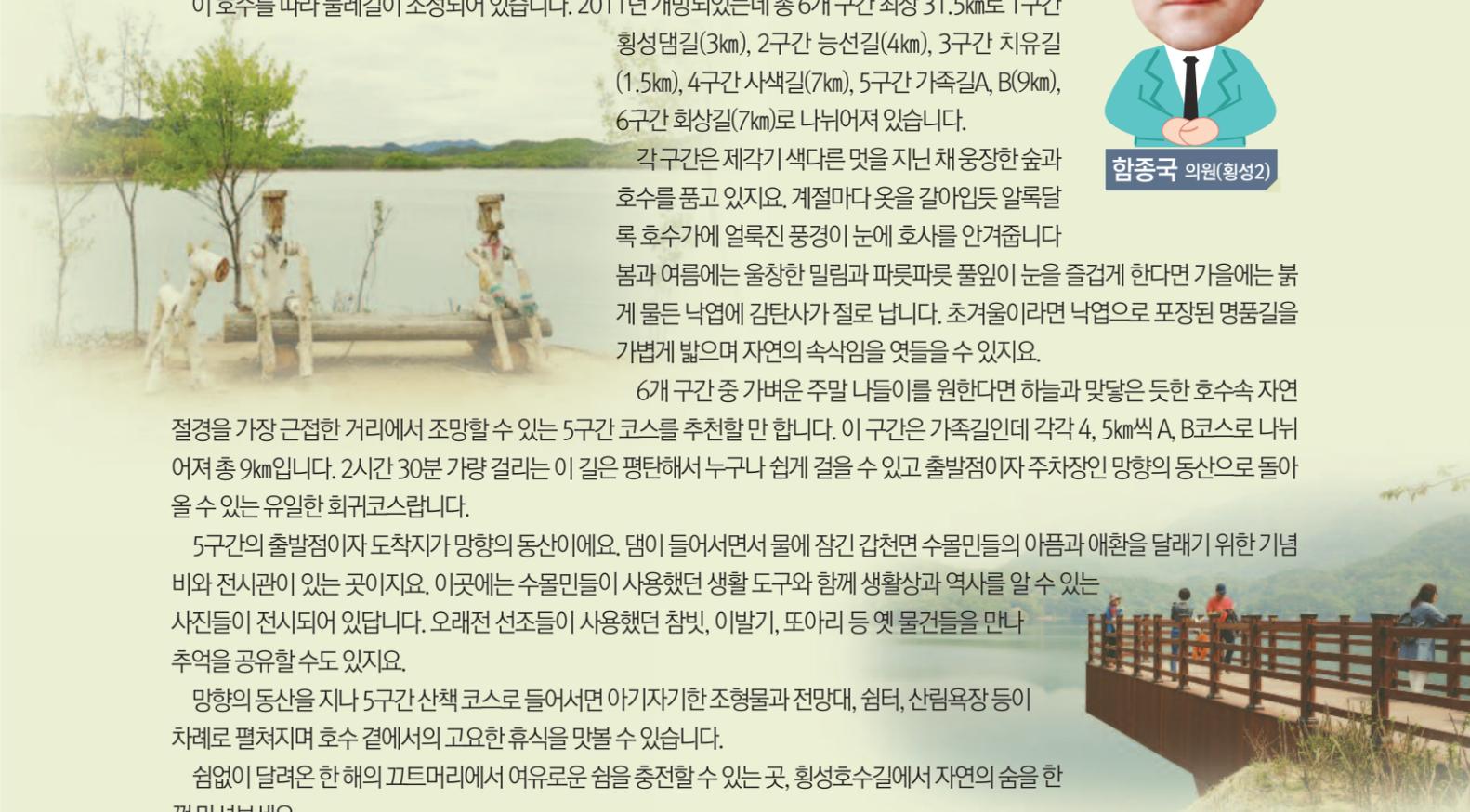
5구간의 출발점이자 도착지가 망향의 동산이에요. 댐이 들어서면서 물에 잠긴 갑천면 수물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달래기 위한 기념비와 전시관이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는 수물민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와 함께 생활상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오래전 선조들이 사용했던 참빗, 이발기, 토아리 등 옛 물건들을 만나 추억을 공유할 수도 있지요.

망향의 동산을 지나 5구간 산책 코스로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전망대, 쉼터, 산림욕장 등이 차례로 펼쳐지며 호수 곁에서의 고요한 휴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쉽없이 달려온 한해의 끄트머리에서 여유로운 쉼을 충전할 수 있는 곳, 횡성호수길에서 자연의 숨을 한껏 마셔보세요.



함중국 의원(횡성2)





양양이 젊은이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났다. 혈기를 발산하러 바다를 찾아오는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에 발맞추어 이국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상점들이 해변을 따라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파도와 태양과 음악에 스스로를 맡기고 고단한 일상을 잊는 서퍼들에게 양양은 이미 힐링 공간이며 동해바다에서 만나는 이국의 상징이 되었다.

### 양양 서핑해변

## 바다를 가르며 젊음을 누려라

### 발리 느낌 서피비치와 하조대 카라반

요즘 양양은 서핑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양에 서핑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2~13년 전쯤부터입니다. 부산에서 서핑을 배우고 즐기던 서퍼들이 서핑하기 좋은 양양을 '발견'한 것이지요. 양양은 해변 길이가 35km에 달하고 해수욕장도 스무 개가 넘는답니다. 양양 앞바다는 대부분 수심이 얇고 파도가 좋아서 서핑하기에 최적지라고 손꼽히고 있지요. 더구나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들어올 수 있으니 젊은이들이 수시로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의 서핑업체가 있는데 양양에만 7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40여만 명인데 5년 전보다 10배는 성장한 규모지요. 더구나 전 세계의 서핑 인구가 약 3,500만 명이고 미국이 280여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서핑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이들 서핑 인구의 70%인 30여만 명이 서핑을 위해 양양을 찾고 있으니 어마어마하지요. 더구나 요즘엔 사계절 서핑이 대세로 자리잡으며 겨울 서핑 인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양양 앞바다 중에서도 물치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중광정해수욕장, 기사문

해변, 잔교리해변, 동산해수욕장, 죽도해변, 인구해수욕장, 남해해수욕장 등이 서퍼들의 천국입니다.

특히 하조대 인근의 중광정해수욕장에는 서피비치라는 서핑서비스 업체가 이국적인 분위기로 해변을 꾸며놓아 소문 난 명소가 되었지요. 얼마 전엔 '2020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곳은 발리의 스미낙 해변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알려지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1km 구간에 걸쳐 서핑 전용 해변이 조성되어 있고 스우밍 존, 빈백 존, 해먹존, 힐링존 등 휴식 공간을 이색적으로 꾸며놓아 그림같은 이미지를 선사한답니다. 1만 원을 내면 자리와 코로나 맥주 1병을 준다고 하네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이라 식사류와 음료만 주문하면, 감성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주는 분위기의 바닷가에 서 종일 여유있게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붉게 달아오르는 일몰 풍경도 장관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서 5분 거리에는 하조대 카라반 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방, 황토방, 포세이돈, 큐피트 등 독특한 컨셉을 가진 카라반에서의 휴식은 색다른 힐링을 맛보게 하지요.



### 스마트 서핑 시티 죽도해변과 죽도정 돌레길

인구해수욕장과 죽도 해변도 서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죽도 해변의 파도는 서핑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라 서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입니다. 죽도해변은 이미 '스마트 서핑 시티'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양양군은 이곳을 서핑해양레저특화지구로 지정했어요. 스파시설 5개를 갖춘 서핑라운지를 설치해 겨울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야외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계탑,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 공원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죽도해변에 가면 무엇보다도 새처럼 파도 위를 날고 있는 서퍼들의 몸짓이기가 막힌 볼거리입니다. 겁겨 그울린 얼굴로 보트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서퍼들에게선 젊음과 건강의 향기가 풍깁니다. 해변 뒤쪽으로는 독특한 음식점과 카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퓨전음식점과 펌, 게스트 하우스 등 개성 넘치는 점포들이 즐비해 이곳에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 들며 우쭐해지기도 하지요.

이곳에는 오토캠핑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17대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캠핑카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도 널찍해요.

죽도에 간다면 죽도암과 죽도정 주변을 걷는 것도 잊지마세요. 소나무가 울창한 이곳은 옛날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육지와 이어져 있어요. 죽도정 돌레길은 약 1km 정도로 길지 않아서 바닷바람에 퍼지는 솔향을 맡으며 걷기 좋은 곳입니다. 성황당이나 죽도해수욕장 방향으로 걸어서 5분쯤 들어가면 절벽 아래에 아담하게 세워진 사찰인 죽도암이 있고 그곳을 지나 이어지는 철제 데크를 통해 맑은 바닷물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지요. 나무 데크길로 내려가면 커다란 바위에서 서서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억겁의 시간 동안 바다와 바람이 만들어낸 독특한 바위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죽도정 전망대에선 푸른 바다가 가슴 가득 들어올 것처럼 시원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이 시름을 풀고 풍류를 즐기던 죽도정에서 한숨을 돌리고 죽도해변으로 나오면 다시 검은 서퍼들의 힘찬 몸짓이 반긴답니다.



김정중 의원(양양)



**전국 적극검사**

코로나19 의심된다면  
지금, 검사받아 주세요!

#증상유무관계없이

#의심되면검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증상유무 관계없이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지금, 검사받아 주세요!**